

해외의약뉴스

약국에서 듣는 음악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개요

음악은 기운을 북돋워주고,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약사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키워드

약국, 음악, 태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을 더 잘 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음악이 수술대에서 이러한 유익한 효과를 보여준다면, 약사와 환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Jason Poquette¹⁾는 음악이 약국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짜증스럽거나 반복적인 음악은 직원들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즐거움을 주고, 경쾌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은 전직원을 집중하게 하고, 침착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Poquette는 직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하였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음악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그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일지라도, 음악이 세대를 연결해 줄 수 있음을 알아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생각할 때 환자를 고려해야만 하며, 이러한 음악 장르가 대부분의 환자와 정말로 연결해주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Poquette는 음악이 좋은 추억을 생각나게 할 수 있으므로 약국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특정 노래는 고객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며, 약국이 환자와 직원 둘 다에게 엄할 수 있지만, 음악은 이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rin L. Albert²⁾는 클래식 음악이, 특히 집중력의 측면에서 최고였고,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가사가 없는 음악을 선호했다고 하였다. Anyssa Garza³⁾는 직장에서 음악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데, 긴장을 풀어주면서도 고양시켜주는 노래들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음악이 생산성과 태도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직장동료를 산만하게 하는 음악이 있음을 알아내어, 어떤 음악을 들려주기 전에, 반드시 전직원이 음악을 통해 편안하도록, 게다가 듣기 좋은 음악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였다고 하였다.

음악은 기운을 북돋워주고,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약사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도 외과 의사 수술하는 동안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문정보 ■

<http://www.pharmacytimes.com/news/how-music-heard-in-the-pharmacy-affects-attitudes>

1) RPh, of Pharmacy Healthcare Solutions

2) PharmD, JD, MBA, an associate professor at Butler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3) PharmD, director of Life Sciences Library at RxWiki